

제1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2014. 1. 15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관)

작성자

마곡사업담당관

담당: 조병훈
(☎2133-1518)

팀장: 김인숙
(☎2133-1512)

과장: 이기완
(☎2133-1510)

「제1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4. 1. 15(수) 10:00 ~ 12:35
- ◆ 장 소 : 영상회의실(서울시청 본관 6층)
- ◆ 참 석 : 정책심의위원 12명
 - 당연직 위원(4명)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직 위원(8명) : 김형식, 손소영, 김이환, 김유숙, 김상일, 조혜영, 김용직, 신창호 위원
- ◆ 안 건
 - 〈보고안건〉
 - 마곡산업단지 분양현황
 - 〈심의안건〉
 - 제4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선정 (6개 사업계획)
- ◆ 심의결과
 - 5개 기업 협의대상자 선정
 - (주)케이티엔에프, S-OIL(주), 신송컨소시엄, 유한테크노스(주), (주)호서텔레콤

□ 주요내용

<보고안건 : 제4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선정>

- 간사 : 안건보고
 - 산업시설용지 분양 현황
 - 1건 계약 및 1건 해지 → 총 29개 기업군(51개 기업) 계약체결
 - 359,897 m^2 (전체 산업시설용지 면적 대비 49.2%)
 - '13. 10~11월 지원시설용지 1차 분양 추진경과
 - 5개 필지 중 4개 필지 낙찰
 - 10,058 m^2 (공고면적의 84%, 전체 지원시설용지 면적 대비 12.4%)

<심의안건 : 제4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선정>

- 간사 : 안건보고
 - 제4차 일반분양 접수현황 및 평가방법 설명

1번 기업 발표후 평가

- 000 위원
 - 주요고객 시장은?
- 기업1 설명자
 - 주요고객은 보안소프트회사. 엔드유저는 금융권, 공공기관 등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장비.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수출중.
- 000 위원
 - 매출대비 해외수출 비중은?
- 기업1 설명자
 - 해외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올해 경우 3% 정도.
- 000 위원
 - 제품개발 역량, 경쟁력은?

○ 기업1 설명자

- 기술이 특화되어, 경쟁자들이 따라오는 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허는 중요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 000 위원

- 연구인력 대비 건물이 과도한 것 같음.

○ 기업1 설명자

- 네트워크 보안에서 헬스케어로 사업확장중. 단일화된 공간 필요.

○ 위원장

-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이 구분이 잘 안되는 듯함. 제조시설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 기업1 설명자

- 부품은 모듈별로 70개사에 외주. 파이널 어셈블리 및 검수만 함.
- 연구시설에 쓰는 테스트 공간인 대형 챔버 시스템 구축 필요.

○ 000 위원

- 현재 한달 임대료는?

○ 기업1 설명자

- 아파트형 공장 일부 구입하여 자가임주 중.

2번 기업 발표후 평가

○ 000 위원

- 신청 클러스터에 대한 적합성 설명 바람.

○ 기업2 설명자

- 사업규모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약 3만^m 규모 부지 필요.
- 주변 교통 연계 및 지하철 소음진동 등 고려하였음.

○ 000 위원

- 울산연구소 인력이 이동하는지?

- 기업2 설명자
 - 울산연구소 인력은 유지할 계획. 신규로 추진함.
- 000 위원
 - 연구인력 증원계획은?
- 기업2 설명자
 - 궁극적으로 약 1,000명 정도
 - 1, 2단계 약 5조원씩 향후 10년간 투자 예상하는데, 그런 석유화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결조건인 기술센터를 마곡에 설립하여, 양질의 연구인력 미리 확보하고 연구소 먼저 활성화 필요함.
- 000 위원
 - 중소기업 파급효과 등 마곡단지 기여 계획은?
- 기업2 설명자
 - 연구에 대한 투자는 협력업체 기술지원으로 파급될 것임.
 - 소재기업들이 주변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함.
 - 세계 초일류 화학기업과 제휴해서 합작추진할 계획.
- 000 위원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계획은?
- 기업2 설명자
 - 초기단계에는 석유화학 매출의 3%를 투자하고, 점차 듀폰이나 다투 코닝 수준인 6%까지 확대 계획.
- 000 위원
 - 화학기업이 연구를 하다보면 필연적인 공해문제 해소 방안은?
- 기업2 설명자
 -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극히 소량이라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안들고, 대부분 고체 소재 연구이므로 공해 배출은 없음.

○ 000 위원

- 어느 화학공장이나, 연구시설이 들어가면 방지시설계획을 같이 냄.
- 공해방지 시설 갖출 계획은?

○ 기업2 설명자

- 철저하게 갖추겠음.

○ 000 위원

- 부지 중간에 도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 기업2 설명자

- 연구시설과 부속연구시설로 나누어 부속연구시설에는 장비운영 용도로 활용할 계획.
- 하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부지신청이 늦어져서 밀렸고. 중간에 도로를 감수하더라도 저런 규모의 입지는 현재 이것뿐임.

3번 기업 발표후 평가

○ 000 위원

- 자기자본,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 기업3 설명자

- 그러함. 차익금보다 현금이 많고, 매년 적자 없이 이익을 내왔으며, 안정적 순익 예상.

○ 000 위원

- 지주사 설립으로 인해 현금보유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듯.

○ 기업3 설명자

- 그렇지 않음. 자산이 많은 회사이며, 부채비율이 낮고 차입능력은 좋지만 현금이 많아서 차입을 안하고 있음.

○ 000 위원

- 중앙연구소 설립시 어느 기업 소속이 되는지?

○ 기업3 설명자

- 하나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다른 계열사가 파견오는 안이 가장 유력함.
- 두 개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별개로 두고 함께 근무할 수도 있음.
- 비용은 각자 쓰더라도 한명의 소장이 통합운영하는 방식.

○ 000 위원

- 한 기업 연구소장이 타 기업 소속 연구 인력까지 지휘하는 것은 다른 얘기임. 관련 규정을 감안하셔야 할 것임.

○ 기업3 설명자

- 알겠음.

○ 000 위원

- 향후 계획중인 연구분야와 GeT클러스터가 부합하는지?

○ 기업3 설명자

- 미생물 연구를 많이 하는데, 발효와 폐수처리 중 폐수처리 문제는 환경 쪽이라고 생각함.

○ 000 위원

- 미생물 배양실이 길가 2층에 있어도 되는지?

○ 기업3 설명자

- 경기도가 만든 수원 바이오센터에 제약사 연구소를 많이 유치했는데, 무균실처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대학 연구실도 강의실 옆에서 하는 등.

4번 기업 발표후 평가

○ 000 위원

- IT 성격인 것 같은데 왜 GeT 쪽으로 신청했는지?

○ 기업4 설명자

- 규모가 작다 보니 작은 부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 000 위원
 - 마곡에 오려는 이유는?
- 기업4 설명자
 - 고객 60%가 영종도, 김포공항, 강서구, 마포구에 집중되어 있음.
- 000 위원
 - 당기순이익 대비 큰 투자비용을 내어 부지를 사고 사옥을 신축하려는 이유는?
- 기업4 설명자
 - 꾸준한 매출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상당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임.
- 000 위원
 - R&D 확장목적과, 마곡에 부지를 얻으려는 이유 사이의 관련성은?
- 기업4 설명자
 - 제품개발에 응용기술 연구가 꼭 필요함.
- 000 위원
 - 기존 본사와 연구소가 다 이전하는 것인지? 전체인원은?
- 기업4 설명자
 - 다 이전할 계획. 현재 80명이 350명 사용중인데 조금 부족한 실정.
- 000 위원
 - 매출이 꾸준하다고는 하지만 늘어나는 것은 안보이는데, 자금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 기업4 설명자
 - 매출의 70% 이상이 고정매출로서 매년 계약 갱신. 10년 이상 된 고객이 대부분. 연평균 30% 정도의 매출 성장을 꾸준히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임.

- 000 위원
 - 23년 된 회사 매출로는 적은 것이 아닌지
- 기업4 설명자
 - 소프트하우스로서 하드웨어가 전무하기 때문에, 원가가 없음.

5번 기업 발표후 평가

- 000 위원
 - GeT 클러스터에서 무엇을 할 예정인지?
- 기업5 설명자
 - 섬유산업 소재와 친환경 소재 연구 시작하고, 제품 상용화 계획.
- 000 위원
 -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제로인데.
- 기업5 설명자
 - 작년 6월에 연구소 설립하여 하나씩 준비중임. 제출한 2012년도 재무제표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 올 하반기 1차 부지 착공하고 해외 연구소도 이관할 계획임.
- 000 위원
 - 1차 부지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 기업5 설명자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 향후 미래를 위한 투자임.
- 000 위원
 - 베트남 등 해외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 기업5 설명자
 - 인도, 베트남 계열사가 있어서 천연소재 원단과 직물이 제조공장과 연결되어 있음. 발열섬유나 최근 아토피 등과 연관해서 하는데, 인프라와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서 통합하려고 계획중.

- 000 위원
 - 그쪽 연구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통합하려는 전체 연구인력은?
- 기업5 설명자
 - 보조연구 인력과 여기 지원인력까지 하면 400명 가까이 되지만 실제 연구인력은 100여명.
- 000 위원
 - 분야별 연구인력 증원 계획이 있는지?
- 기업5 설명자
 - 연구인력이 진출해있는 나라에 산재해 있음. 단순산업으로는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R&D 부분이 필요해서 연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또 다른 연구소 설립계획도 있음.
- 000 위원
 - 이번 부지는 1차 부지와 다르게 활용할 계획인지, 1차 계획도 바뀌는 것인지?
- 기업5 설명자
 - 섬유산업 기능이 이번에 신청한 부지와 연결될 수 있지만 1차의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님.
- 000 위원
 - 1차 때 투자 계획과 이번 투자 계획 양쪽에 모두 들어간 하나의 기업이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기업5 설명자
 - 착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유보자금과 재원조달 능력 있음.
- 000 위원
 - 매입할 때마다 좋은 조건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듯. 부지가 더 필요한 이유가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은 것 같음.

○ 000 위원

- 구체적인 연구인력 충원계획, 기존 연구인력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음. 1차 부지와 재원조달, 연도별 투자계획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 기업5 설명자

- 일부 상관 있음. 매출신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실제 운영도 6년 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확대를 준비중임.
- 현재 이 부지가 너무 커보이거나 준비가 미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음. 재원조달이나 사업 수행능력은 충분하며,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음.
- 패션에 대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있는 생산연구인력을 집대성해야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함.

[기업관계자 퇴장]

○ 000 위원

- 법에 의한 연구소 인증을 받을 때 연구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조나 유통, 영업과는 완전히 분리하게 되어 있음. 나중에라도 과연 그만큼을 쓰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할 듯.

○ 000 위원

- 두 번째 부지 신청시 앞서 계획과 같이 볼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할 듯.

○ 위원장

-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서에 앞에 것과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간사

- 알겠음.

6번 기업 발표후 평가

○ 000 위원

- 2018년에 매출과 연구인력은 3배, 연구비는 6배 증액하겠다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 기업6 설명자
 - 우리 분야는 시장 선점이 기본적인 마케팅의 출발이 됨. 지속적으로 기술개발투자를 하고 남보다 먼저 제품을 상용화해야 하며, 마케팅이 중요함. 사전영업을 통해 고객과 공감대 형성하고 제품 개발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뒷받침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사업 영유가 가능함.
- 000 위원
 - 해외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 기업6 설명자
 - 작년에 처음 진출해서 아직 미미하여 2013년 40만불. 올해는 약 300만불 추정.
- 000 위원
 - 방송장비 특성상 국내매출에는 한계가 있을 듯.
- 기업6 설명자
 - 시청, 호텔, 공공기관 등 민간 수요가 많이 발생함.
 -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활발하게 진출중. 전세계에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약 10여개뿐. 전세계적으로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 추세이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이며, 사업기회는 많다고 봄.
- 000 위원
 - 마곡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 기업6 설명자
 - ICT융합으로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융합되는 시대에 맞는 장비 개발 필요함. 관련업체가 밀집한 곳에서 사업을 하면 기술개발, 연구인력 공유 등 시너지 창출할 것으로 판단함.

○ 000 위원

- 그런 면에서는 테헤란로나 상암 등이 더 유리하지 않나.

○ 기업6 설명자

- 현재 본사는 테헤란에, 공장은 등촌동에 있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관리측면에서 불합리하며, 테헤란로 쪽에는 제품개발보다는 서비스 위주의 기업들이 많아서 불리함. 임대료 상황도 좋지 않음.

○ 000 위원

- 공장은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 기업6 설명자

- 등촌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음.

○ 000 위원

- 그대로 두고 본사 기술연구소를 확장하면서, 건물을 짓고 싶다는 말 씀인지?

○ 기업6 설명자

- 그러함.

[기업관계자 퇴장]

○ 간사

- 평가집계결과 발표

○ 위원장

- 비경합 부지는 전부 600점 이상임. 4개 다 신청부지에 대한 협의대상자로 선정하겠음.
- 경합부지에 대해서는 한 곳이 600점이 안되므로, 00기업을 협의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 위원장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음.